

하나님의 사실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트집잡아 율가미를 씌우려고 바리사이파와 헤로데당원 몇 사람을 예수께 보냈다. 그 사람들은 예수께 와서 이렇게 물었다. 「선생님, 선생님은 진실하시며 사랑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아무도 꺼리시지 않고 하느님의 진리를 참되게 가르치시는 줄 압니다. 그런데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않아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교활한 속셈을 알아채시고, 「왜 나의 속을 떠보는 거냐? 메나리온 한 닢을 가져다 보여다오」 하셨다. 그들이 돈을 가져오자. 「이 초상과 글자가 누구의 것이냐?」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카이사르의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그러면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돌려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경탄해 마지 않았다.

(마가 12 : 13~17)

요즘 신문 광고에 난 책 광고를 보고 읽어 볼 만한 듯한 책들을 주섬주섬 사 가지고 집에 갖다가 책꽂이에 꽂아 놓고 시간 있을 적마다 뒤적거려 봤지만 웬일인지 정독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나오는 책들과 나 자신이 현재 하고 있는 일과의 거리가 너무 먼 것만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옛날에 읽었던 책들을 끄집어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10년 전에 출판된 E. H. 카아의 <역사란 무엇

인가>라는 책을 읽으면 새삼 우리의 역사에 대해 골똘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역사과목이라고 해서 대개 연대적으로 언제 어디서 어떤 인물이 무슨 일을 했고 나라가 어떻게 되었고 전쟁이 어떻게 생겼는가 등에 대한 지식을 얻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역사를 배웠다고 하고 이제는 역사를 아는 사람으로 자처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렇게 학교에서 배운 역사, 혹은 책을 읽고서 얻은 역사지식만을 가지고 역사를 안다고 할 수 있을까?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의 벽에 부딪칩니다. 이 역사라는 것이 우연한 사건의 인과관계에서만 설명되어지는 것일까? 그렇지 않으면 역사를 움직이는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만일 역사라는 것이 인간의 조작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역사의 배후에는 어떤 힘이 있는 걸까?

우리는 일찌기 신앙의 입장에서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역사가 움직여진다고 신앙고백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역사의 수수께끼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우리가 아는 역사의 수수께끼 가운데 가장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것이 있다면 일본의 역사와 관련된 한국역사일 것입니다. 우리가 고대 중세의 역사까지 소급하거나 왕정의 역사까지 들추어 내지 않더라도 근세에 이르러서 일본은 언제나 한국을 침략하려고 했고, 또 36년 동안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해서 갖은 압박과 착취를 감행했던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이러한 역사적 과오를 범한 일본이나 독일, 그밖의 여러 나라가 오늘의 역사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로 등장하고 강대국으로 발전했을까? 어찌해서 언제든지 평화를 사랑하고 침략이란 것을 모르던 우리 민족이 늘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역사에서는 선보다 악이 지배하는가? 그렇다

면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린다는 말은 어떻게 된 것인가?

결국 역사라는 것은 힘있는 사람이나 나라가 지배하는 것이며 약자는 언제나 강자에게 예속되게 마련이라고 체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월남전에서 드러난 결과는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천문학적인 숫자의 경제력과 막강한 군사를 동원해서 오랜 시일을 두고 전쟁을 했지만 미국은 조그만 월남 문제를 해결 못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역사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딱 들어맞지 않는 것이며 수학의 공식처럼 맞아 떨어지는 것도 아닌 모양입니다.

이번 3·1사건 공판을 처음부터 방청을 하면서 나 자신이 느끼고 배운 바가 많았으며 동시에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우리 동역자들이 3·1절 구국선언문을 낭독함으로써 역사적인 사실을 왜곡했다는 데 그 고발당한 핵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놓고 우리 나라의 GNP가 성장하고 모든 것이 잘 되어간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검찰 측과, 한국의 현실 속에서 아직도 빈부의 격차가 심하고 늘어나는 외채로써 이룩한 경제발전은 대단히 불안정하고 어떻게 보면 국민 생활이 더욱 악화되어질 수가 있다는 우리 동역자들의 답변 사이에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판단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한 가지 역사적 현실을 놓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리는 것입니다. 역사의 수수께끼는 이러한 태도, 즉 한 가지 역사적 사실을 놓고 서로 엇갈린 해석을 내릴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런 역사적 수수께끼를 어떤 안목으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전적으로 긍정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무슨 일이든지 다 인과관계에서 생겨지는 일이므로 긍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어떤 힘이 생겨지면 그것이 생길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

기 마련이니 그것을 정당화해야 한다는 현실주의적인 주장입니다.

이와 반대로 역사적인 현실은 모두 악의 현상이니 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역사의 무대에서 출추는 위인들은 다 생존 경쟁에서 승리한 자들뿐이고 착하고 선한 사람들은 늘 굴종해서 살 수밖에 없다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켜온 역사의식, 역사에 대한 태도의 밑바닥에는 언제나 이상의 두 가지 극단적인 태도가 깔려 있었습니다.

이조 오백년을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나라는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태도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언제나 남에게 뒤진 나라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의 역사 속에 들어온 지 백 년이 가까와 오는 기독교는 이러한 전통적인 역사관에 새로운 활로를 보여주었습니다. 역사는 결코 전적으로 부정적인 것이 아니며 또 전적으로 긍정적으로만 볼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역사적인 사실을 상대화시켜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 안에서 행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부정할 것도 긍정할 것도 없고 다만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으로써 그의 나라와 의가 차곡차곡 이루어져 가는 과정으로 우리의 역사를 파악하는 것이 기독교의 역사관입니다.

인간이 이루어 놓은 정치 문화 경제의 모든 바벨탑은 절대화되어 우상처럼 섬겨져서는 안된다는 것이 기독교의 역사관이요, 이것이 이번 3·1사건의 구국선언문의 근본 취지인 것입니다. 이 역사관을 지키기 위한 싸움에서 이번 사건이 생겼으며 이 역사관 위에서만 우리는 공산주의를 사상적으로 이길 수 있다는 확신 때문에 그러한 행동과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경제 문제를 긍정적으로 볼 것이냐 부정적

으로 볼 것이냐 하는 것은, 28일 판사의 판결에서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궁금한 일이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에 대한 대답은 아주 간단하다고 봅니다. 한국의 오늘의 경제 문제는 경제 기획원이나 생산 공장이나 기업체의 사장실에서 분석해서 숫자적인 통계로 나타나지만 가장 현실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입장에서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가정 주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일 시장에 나가서 반찬거리를 사는 가정 주부들이 생선 야채 옷감 등 의식주의 필수품을 사들이니 그들은 경제사정을 피부로 느낍니다. 그래서 종류 이상의 가정 부인들이 치솟아 가는 물가에 뒤편을 수 있는 수입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의 한국 경제가 잘 되어가고 있다고 판단될 것이고 이와 반대로 영세 수입을 가진 서민층 가정 주부들은 아무리 힘써 일해도 생활의 안정이나 필수품을 사들일 수 없으니 오늘의 경제를 부정적으로 볼 것입니다. 요컨대 오늘의 경제 성장에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오늘의 경제를 찬양할 것이고 이런 혜택에서 제외된 계층에서는 경제 성장을 부정적으로 볼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어느 편에 서서 오늘의 경제적 현실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문제가 됩니다. 3·1선언문에 서명한 사람들은 분명히 가지지 못한 소외된 사람들의 편에 서서 오늘의 역사를 보고 이것이 하느님의 사업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경제 성장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편에서는 이것을 사실의 왜곡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의 왜곡이 아니라 하나의 현실, 하나님의 사실이니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사전을 고발한 셈입니다. 이렇게 역사를 두 가지 입장에서 보는 안목에서 우리의 총들과 갈등이 시작됩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헤롯 신하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입에 발린 칭찬을 해가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는가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난처한 처지에 빠지게 하여 책잡으려고 하는 의도에서 한 것이지만 이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예수께서는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는 유명한 답변을 함으로써 이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이 대답은 사실상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에게 대한 답변이지만 오늘에 이르기까지 기독교 안에서 수많은 논쟁을 일으킨 말씀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세상의 권력과 하느님의 섭리, 하나님에게 대한 신앙 고백이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 하는 역사관의 문제가 내포되어 있으며 이에 관한 상세한 한계를 다 논할 수는 없습니다.

헤롯 당원은 정치적으로 당시의 여당이었고 바리새인들은 야당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상반되는 입장에 선 두 당파가 공동으로 예수를 잡으려고 이러한 간계를 생각해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에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로라고 하신 것은 결국 이 세상 안에 종교적인 영역과 정치적인 영역이 따로 있기 때문에 들을 혼돈할 필요없이 따로 분리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이 잘못되었음을 분명히 알게 해주는 것은 예수께서 당시 정치적 권력에 의해 죽음을 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깨끗한 종교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을 분리해서 정리했는데 왜 예수께서는 유대교와 로마 제국의 권력에 의해서 죽어야만 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린다는 말 중 <돌린다>에 주의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 돌린다는 말은 희랍어로 「아포디도오미」로서 원어의 의미는 「내가 나의 존재를 위해서 빛진 자에게 그 빛을 갚는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의 참 뜻은 너희가 살아있는 현존의 근거가 하나님이라고 믿거든 하나님에게 너의 존재의 부채를 갚고 너희가 가이사의 덕분으로 존재한다고 믿거든 그

빛을 가이사에게 돌려라.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너희 자신이 지 내게 물을 바가 못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정치적인 질서나 체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잠정적인 것이며 이러한 잠정적인 것을 뒷바침해 주는 근거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권력자들은 이러한 한계를 무시하고 가이사라는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도 가이사에게 돌려라는 억지를 부립니다. 이것이 권력의 절대화요 우상화라는 것입니다.

3·1 사건 때문에 법정에서 선 우리 동열자들의 진술을 듣고 느낀 것은 그들은 어디까지나 이 백성이 이 세상의 권력의 통치 아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의 어린 양이니, 가난한 사람이나 힘 없는 사람도 한 사람도 예외없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천부의 권리와 행복을 누려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 즉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는 하나님에게로 돌려야지 사람에게 돌려질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양심의 자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양심의 자유를 빼앗을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무슨 명분을 붙여도 우리의 기본적인 권리, 양심의 자유는 박탈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지 가이사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백만의 군대를 동원해서 성을 함락시킬 수는 있어도 인간의 양심이라는 성벽을 허물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에게 속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에는 31년만에 해방절을 맞이했습니다. 오는 주일에는 3·1공판의 언도가 있을 것입니다. 18일에는 복피가 판문점에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우리는 숨가쁜 역사적인 순간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나라에서 어떠한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가? 오는 28일 공판에서 판사는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어린 양, 그리고 그의 충실한 종들이 양심의 자유를 지키는 한, 하나님의 역사와 사실을 말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1919년 3월 1일, 이 나라의 어진 백성들이 일제의 억압에서 해방되기 위한 함성과 고백을 기억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을 재천명하는 행동을 정치적으로 다루어서 가이사의 법정에 세워 가이사의 법에 의해 심판하려고 하는 엄청난 이 현실 앞에서 있습니다.

나무를 찍는 도끼로 사람을 찍어 죽이는 야만적인 행위로써 평화를 말하는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양의 가죽을 쓴 이리떼에게 위협당하고 있는 위기에 직면하여 있습니다. 같은 피, 같은 민족이라고 하지만 어찌 이렇게도 잔인할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이 숨가쁜 역사적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현실 앞에서, 겸허한 자세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올려야 하겠습니다.